

광주 서구, 지속 가능한 혁신시스템 '전국 최고'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생활밀착 혁신행정 인정 민생경제·복지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지방행정 새로운 기준

광주 서구가 지속 가능한 혁신시스템을 제도화한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서구는 지난달 3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1996년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지방자치 평가 제도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혁신, 교육문화, 복지보전, 지역개발, 산업경제, 기후환경 등 6대 분야를 종합 심사한다.

서구는 민생경제·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생활밀착형 혁신행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역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기초지자체 최초로페이백 정책을 도입하는 등 골목경제를 회복 구조로 전환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또 지자체 주도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를 통한 민간 협력 복지모델,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수당 도입 등

은 복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한 선도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함께서구 행복학교' 등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둔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정부 모델로 완성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과는 민선 8기 서구가 추진해 온 '착한도시' 비전인 정책 브랜드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기강 서구청장은 "이번 종합대상 수상은 28만 서구민과 1000여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혁신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 현장중심, 눈높이 행정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서구는 최근 서울 공군호텔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광주 서구청

자두×안영민, 고흥군 관광브랜드 음악 프로젝트 참여

지자체-아티스트 협업, 음원 '봄바람 휘날리고' 공개

가수 자두와 프로듀서 안영민이 봄과 함께 새로운 음악으로 돌아왔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가수 자두는 히트곡 프로듀서 로코베리 안영민과 손잡고 고흥군 관광브랜드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번 곡 봄바람 휘날리고(Feat. Goheung)는 고흥의 독보적 관광자원을 감성적으로 담아 노래로 풀어낸 작품으로, 자두의 맑은 보컬과 안영민의 섬세한 프로듀싱이 만나 따뜻한 고흥의 봄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흥군이 제작 지원에 참여했으며, 헤이엔터씨가 기획을 맡아 지자체와 아티스트의 협업을 성사시켰다. 지자체가 대중음악 방식으로 지역의 감성을 풀어낸 사례는 드문 시도로, 새로운 지

역 브랜드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음원은 1일 공개되며, 이후 고흥의 풍경을 담은 영상 콘텐츠와 함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중들과 만날 예정이다. 자두는 "고흥의 아름다운 봄을 담은 노래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다. 봄에 잘 어울리는 따뜻한 곡이고, 개인적으로도 노래가 너무 좋아 즐겁게 작업했다"며 "많은 분께 편안하게 다가가는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영민 역시 "헤이엔터씨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 의미가 크고 자두와의 작업도 즐거웠다"며 "이 노래를 통해 고흥이라는 곳이 더 많은 분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가수 자두(왼쪽)는 히트곡 프로듀서 로코베리 안영민과 손잡고 고흥군 관광브랜드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사진제공=고흥군청

공영민 고흥군은 "상당한 유자 향기와 깨끗한 봄바람이 부는 고흥의 정취를 귀로 즐겨보시길 바란다"며 "이번 곡이 전국 어디서나 고흥을 떠올리게 하는 힐

링성이 돼 고흥의 매력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기분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광주상공회의소는 '제53회 상공의 날'을 맞아 정기사업 전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에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사진제공=광주상공회의소

광주상의, 안도걸 의원 등 공로패...지역경제 유공 정기사업 전 주택건설협 광주전남도회장 감사패 수여

광주상공회의소는 '제53회 상공의 날'을 맞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기여한 안도걸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정기사업 전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에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세계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1조원 규모 중부세 소급 추진 가능성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세계 개편 당시 일부 과세 기준의 모호성이 지적되면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세 부담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기사업 회장이 현장 의견을 수렴해 문제 해결을 건의했고, 안도걸 의원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며 공동 대응이 이뤄졌다. **중 소결과 '세계 개편 후속 시행령 수정안'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이 보**

다 명확히 반영되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세금 부담과 제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두 사람의 긴밀한 공조와 관계부처의 합리적 판단이 맞물리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며 "지역 기업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제도 합리화를 위해 현장과 정책을 잇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상의는 광주상공대상 시상과 모범·장기근로자 표창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서비스 현장 실질적인 존중 문화·인식 변화 홍보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 본부는 지난 31일 광주광역시 동구 일원에서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제도' 시행 이후 사업주의 조치의무 대상이 고액뿐만 아니라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된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정신적 건강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캠페인에는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와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관계자 등 총 20



여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캠페인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3개의 폭언 등에 노출된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정신적 건강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캠페인에는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와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관계자 등 총 20

중진공, 유희자원 나눔 재순환...지역사회 상생

전남 23곳 아동복지시설에 책상·의자 등 기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사용 가능한 폐기물 자원 순환을 위한 '자원순환형 사회공헌'에 나서며 복지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이고 있다. 중진공은 전남지역 23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했다. 기부는 사무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유희자원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공기관 내부 자산을 지역사회로 순환시키는 구조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기증 물품은 책상과 의자 등 상태가 양호한 사무용 집기로 구성됐다. 해당 물품



은 전남지역 아동복지시설의 행정업무 환경 개선과 아동 생활 여건 향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노후 집기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으로 평가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희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완도군은 최근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재원 확보에 기여한 모범 납세자와 성실 납세자를 선정했다. 사진제공=완도군청

완도군, 모범·성실 납세자 100여명 선정

표창·증명서 수여...서한문·상품권도 전달

완도군은 최근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재원 확보에 기여한 모범 납세자(법인 2개소, 개인 2명)와 성실 납세자(개인 100명)를 선정했다. 모범 납세자는 '완도군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법인인 20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 자이다. 올해는 주식회사 한국본체(대표 문창훈), 주식회사 평화(대표 국민호), 완도읍 김승주, 신지면 김민재씨가 모범 납세자로 이름을 올렸다. 성실 납세자는 선정일 기준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개인 납

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군 감사실 납세자 보호관이 참여한 가운데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3858명 중 성실 납세자 100명을 뽑았다. 군은 모범 납세자에게 군수 표창과 증명서를 전달했으며, 모범 납세자에게는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완도사랑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준 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kr1831@**



목포해양경찰서는 1일 경찰서 서정실에서 경찰관 16명에 대한 승진임용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 경찰관 16명 승진임용식 가제

목포해양경찰서는 1일 경찰서 서정실에서 경찰관 16명에 대한 승진임용식을 가졌다. 이번 승진인사는 근속승진, 시험승진, 심사승진을 통해 이뤄졌으며, 경감 1명, 경사 2명, 경사 4명, 경장 9명이 각각 승진했다. 경감 승진자는 김민준(수사과)이며, 경위 승진자는 박정호(기획운영과), 김대호(진도파출소)다. 경사 승진자는 최영광(수사과), 서동운(경비구조과), 안성근(3009함), 윤영웅(305함)이며, 경장 승진자는 김은지(기획운영과), 문현철(3020함), 황인용(해양안전과), 이다민(흑산파출소), 김혜연(암태파출소), 양윤

지(경비구조과), 최나연(경비구조과), 김나연(수사과), 김호수(3020함)이다. 승진자들은 각 부서와 치안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해양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정호 경위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 발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승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해양 안전 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주용준 기자 ju60911@gwangnam.co.kr**